



## 미 증시, 부채한도 협상 세번째 회동 앞두고 혼조세

### 미국 증시 리뷰

22 일(월) 미국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세번째 회동을 앞두고 관망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엇갈린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혼조세로 마감 (다우 -0.42%, S&P500 +0.02%, 나스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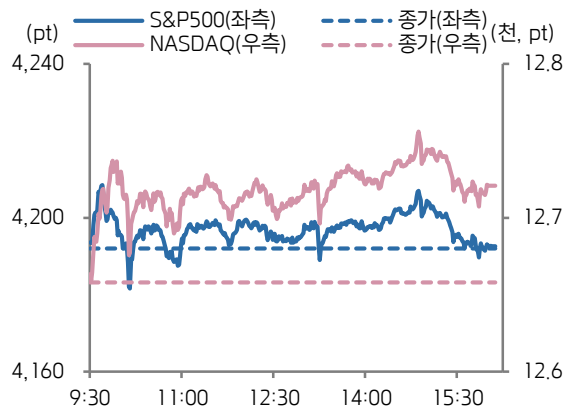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하향 압력을 가하고 우리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인상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두 번의 추가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최종금리 5.50~5.75% 가능성 시사.

닐 카시카리 미네애플리스 연은 총재 역시 현재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것, 6 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는 있지만 긴축 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7 월에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발언. 은행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최근 은행 문제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 한편 비둘기파 인사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정책은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다면 나는 그저 두고 보자고 하는게 편할 것 같다"고 동결 주장.

현지시간 22 일 부채한도 관련 세번째 협상 진행 예정. 매카시 의장은 "나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언급, "그러나 이번 주 안에 협상이 이뤄져야 법안을 통과해 상원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 현재 공화당이 저소득층 급식 지원프로그램에 있어 추가 삭감을 제안했으며, 양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일부 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세력 사이에서는 지출 삭감에 반대를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 조(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권한 부여)를 발동하여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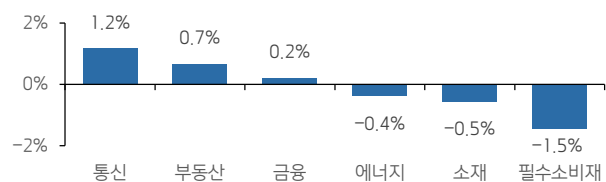
통신(+1.2%), 부동산(+0.7%), 금융(+0.2%) 업종은 강세, 필수소비재(-1.5%), 소재(-0.5%), 에너지(-0.4%) 업종은 약세. 마이크론(-2.85%)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중단한다고 보도된 영향으로 급락. 메타(1.09%)는 EU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한 것과 관련해 EU 개인정보보호기관이 12 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영향으로 장전에 급락했으나,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칩 공개 이후 상승 전환 마감.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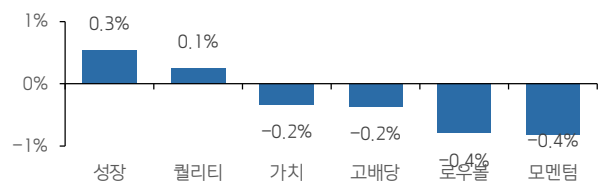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57.08	+0.76%	USD/KRW	1,318.39	-0.61%
코스피 200	336.27	+0.61%	달러 지수	103.24	+0.04%
코스닥	852.04	+1.23%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289.20	+1.77%	USD/CNH	7.05	+0.01%
S&P500	4,192.63	+0.02%	USD/JPY	138.57	-0.02%
NASDAQ	12,720.78	+0.5%	채권시장		
다우	33,286.58	-0.42%	국고채 3년	3.312	-2.5bp
VIX	17.21	+2.38%	국고채 10년	3.387	-2.8bp
러셀 2000	1,795.38	+1.22%	미국 국채 2년	4.315	+5bp
필라. 반도체	3,215.04	+0.36%	미국 국채 10년	3.715	+4.2bp
다우 운송	13,940.80	+0.22%	미국 국채 30년	3.966	+3.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85.63	-0.22%	WTI	72.05	+0.5%
MSCI 전세계 지수	657.46	+0.16%	브렌트유	75.97	+0.52%
MSCI DM 지수	2,845.71	+0.1%	금	1995.7	-0.23%
MSCI EM 지수	983.27	+0.62%	은	23.72	-0.86%
MSCI 한국 ETF	63.11	+1.71%	구리	367.4	-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1.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2.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뉴스플로우 3. 반도체, 자동차, 엔터 등 주요 업종 내 순환매 지속 가능성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연초만큼의 탄력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 증시는 "Sell in May" 불안을 극복하고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S&P500(+20.1%), 나스닥(+26.1%), 코스피(+19.8%), 코스닥(+31.0%), 독일 DAX(+37.8%) 등 주요 지수는 지난해 장중 연저점 대비 약 20% 이상 상승세를 시현 중에 있음(증가 기준으로는 이보다 소폭 낮음).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저점대비 20% 이상 상승하면 강세장으로 정의되는 만큼, 금번 주요 지수들의 저점대비 20% 이상 반등이 새로운 강세장의 초입일 가능성이 존재. 물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약세장 속에서도 저점대비 20% 이상 반등 했던 가짜 강세장 신호가 등장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기에, 일각에서는 현시점부터 주식 비중을 큰 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ex: S&P500 기준으로 1929~1932년 약세장에서 저점대비 20% 이상 반등 사례 5회 출현, 2007~2009년 약세장에서 저점대비 20% 이상 반등 사례 1회 출현 등).

증시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는 데에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간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상단이 어느정도 열리는 문제, 즉 "진짜 강세장 vs 가짜 강세장"을 둘러싼 전망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재료를 소화함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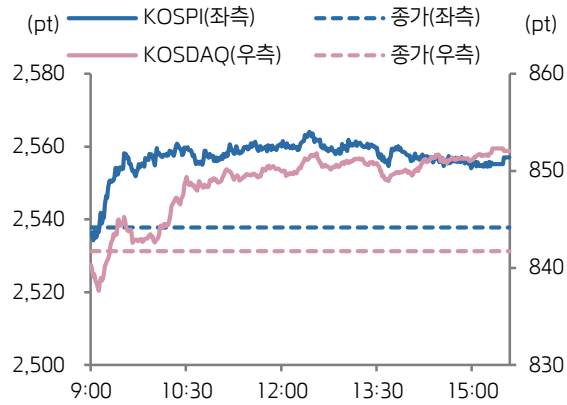
현재 뉴스플로우의 중심에 있는 부채한도 이슈는 "협상 기대 강화 → 협상 기대 약화 → 협상 기대 재강화"의 반복 루프를 생성해내면서 불확실성을 증시에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 재정지출 문제, 부채한도 연장 시점 등이 쟁점이 되면서 금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매카시 하원 의장간의 3차 협상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다만, X-Date 로 설정된 6월 초(옐런 재무장관은 1일, 해외 IB 들은 7~8일) 이전에 협상 타결이라는 기존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금번 부채한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

부채한도보다 증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료는 연준 정책 이슈가 될 것. 지난주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인상 중단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전일 50bp 추가 인상을 주장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6월 동결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기 아닐수도 있다고 언급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 대다수가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 그간 증시에서는 연내 금리인하 뿐만 아니라 "6월 금리인상 중단으로 긴축 사이클 종료"라는 전망을 주가에 반영해왔던 만큼, 그 전망이 훼손되면 주가는 일정부분 되돌림 조정을 맞이할 공산이 있음. 하지만 연준 역시 데이터 후행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6월 FOMC까지 4월 PCE, 5월 CPI 및 고용 등 주요 데이터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6월 금리인상설에 대한 불안감은 과도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주 파월의장의 금리인상 중단 발언 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반도체,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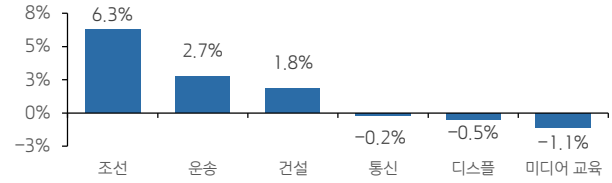
금일에는 연준인사들의 매파발언, 부채한도 협상 문제 등 미국발 불확실성 vs 원/달러 환율 하락(역외 -7원) 및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여건 등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업종 관점에서는 전일 미구 증시에서 테슬라(+4.9%)로 AI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만큼,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AI 포함 성장주들의 투자심리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 한편, 최근 국내 증시 내에서는 그간 주도 테마주였던 2차전지주에서 수급 이탈 이후 반도체, 자동차, 엔터 등 여타 주요 업종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들 업종 간에도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수급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순환매 트레이딩은 지양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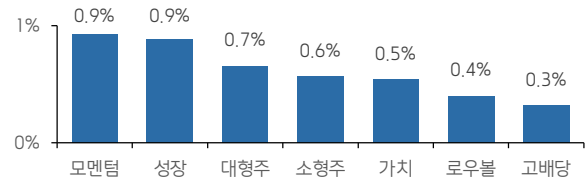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